

북한연구방법으로서 탈북자 조사의 활용과 연구 동향

정은미(현대사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며

지난 시기 북한연구 분야에서는 두 번의 연구방법론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첫 번째 논쟁은 냉전의 시대였던 1970년대 초반에 전개되었고, 두 번째 논쟁은 탈냉전의 시대가 시작되던 1980년대 말경에 벌어졌다. 전자는 북한사회를 사회과학의 한 연구대상으로 인정했을 때 방법론적으로 실증적인 북한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점이었다면, 후자는 북한사회를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것인가라는 점이 쟁점화되었다. 특히 냉전 시대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논쟁은 이념적 가치개입으로부터 벗어나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에 반해,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던 1980년대 말에 벌어졌던 논쟁은 오히려 이념적 대립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지닌다.

과거 두 차례의 북한연구방법론 논의는 실증주의적인 북한연구의 지향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그러한 지향은 경험적 접근을 요구하였다. 북한연구에서 경험적 접근의 강조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분단이라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한편으로 남북의 이념적 대립

은 북한연구의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지배하는 편향을 낳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벗어나 실증적 접근을 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대상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접근에 이중적 제한¹⁾이라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역설적으로 연구대상 또는 자료에 대한 접근의 이중적 제한은 연구자로 하여금 북한연구의 실증적(또는 경험적) 연구방법에 더욱더 전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학문적 요구와 급변하는 북한의 사회변동의 부산물인 탈북자 증가와의 접합은 최근 북한연구에서 탈북자 조사²⁾가 주된 연구방법의 하나로 대두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급증한 탈북자들은 북한연구의 경험적 접근을 가능케 해줄 자료 획득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연구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겼다.

탈북자 조사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연구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중요한 실증자료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탈북자 조사는 공간(公刊) 자료 의존적인 북한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최봉대, 2003: 306). 박순성(2002)이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비록 접근 가능한 자료일지라도 이미 왜곡된 사실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 조각들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 조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사실에 대한 부

-
- 1) 여기서 이중적 제한이란 북한에서 발행된 문헌이나 자료들이 우리 정부 당국에 의해 접근이 차단 또는 제한되는 동시에, 북한 당국 자체에서 내부의 일부 정보나 자료를 외부에 유출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원천적으로 이용이 불가능 — 어떤 정보나 자료가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 한 것을 의미한다.
 - 2) 이 글에서 사용되고 있는 ‘탈북자 조사’ 용어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연구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탈북자 조사에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설문지조사뿐만 아니라 탈북자의 증언록 또는 수기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분적·전체적 차원에서의 확인에서부터 새로운 사실에 대한 발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탈북자 조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북한연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북한연구방법으로서 탈북자 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편식 또한 심각하다. 현재 국내에 발표된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연구의 상당수가 남한사회에서 탈북자들의 적응실태 조사 및 정책적 대안 제시에 관한 내용들이며,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북한사회의 이해와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은 여전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설령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연구일지라도 방법적 차원³⁾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탈북자 조사에 기초한 북한연구들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방면의 연구는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는 않다. 사실 확인의 어려움과 자료 활용의 동질성에 의해 연구성과들 사이의 질적인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다는 전상인(1999)의 지적과 북한연구는 여전히 ‘실증의 빈곤’과 ‘방법의 빈곤’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이 어렵고 동시에 방법 없는 서술은 연구를 단순한 경험적 기술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김연철(2001)의 통렬한 비판은 북한연구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과 고민을 자극한다.

이 글은 북한연구에서 탈북자 조사가 하나의 연구방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실태와 그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분석에 앞서 1990년대 중반 탈북자 조사의 대두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중반 사이에 있었던 북한연구방법론 논의들

3) 여기에는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 증언 자료의 활용 방법 등의 문제들이 포함된다. 특히 탈북자면접조사에서 방법적 차원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최봉대,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연구방법론』(한울아카데미, 2003) 참조.

— 북한연구의 실증주의적 과학관 수립 논의와 내재적 접근론 논쟁 — 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현상이 아님을 먼저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북한연구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 유형들이 갖는 특징과 장점, 그리고 한계를 밝힘으로써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북한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연구방법론에 대한 기존 논의들

1) 냉전기의 실증주의적 과학관 제기

1970년대 초반에 형성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타트 분위기는 우리 사회에서 지난 시기 이념적 제약의 틀에 갇혀있던 북한연구에 일시적으로나마 활기를 불어넣었다. 1975년 8월 『북한』이 마련한 북한연구 30년 결산 좌담회의 제목은 “北韓研究의 學的 體系와 方法的 省察”이었다. 당시 좌담회 참석자들은 북한연구가 “교육·홍보적 차원으로부터 정책과학적 대상, 그리고 사회과학적 대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學)으로서의 북한연구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러자면 자연스럽게 접근방법론의 선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리를 같이 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에서 일어난 사실만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어떤 논리성을 부여하고 체계화하여 이론으로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를 토론했다(양호민 외, 1975: 102~103).

참석자 대부분은 체제변동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 모델’과 직접 관찰이 필수적인 ‘행태론적 접근’은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북한연구의 가장 큰 장애로 자료의 제한성과 왜곡을 지적했다. 또한 그들은 비교사회주의 방법의 유용성을 강조했는데, 스탈린

주의와 레닌주의를 ‘원형’(prototype)으로 하여 북한과 다른 공산주의 국가를 비교해 체제의 차이를 드러내거나, 북한체제가 스탈린주의의 이식(移植)임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적 분석을 통해 ‘북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북한연구가 실증적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과학으로부터 보다 발전된 이론 및 방법론의 수용”이 절실했으며, 이것은 “사건중심의 나열적 기술에서 탈피하여 법칙정립적(nomothetic) 연구로 지향하기 위해서”⁴⁾ 필요했다. 안병영(1975)은 법칙정립적 북한연구를 위해 연역 또는 귀납적 경험주의의 사용, 반복적 검증을 목표로 하는 공산주의 비교연구 방법론의 적용, 경험적 일반화를 지향하는 행태주의의 수용, 정책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예측의 강화 등을 역설했다(197).

그러나 경험적 관찰에 인식론적 특권을 부여하는 실증주의적 과학관을 수용하는 순간, 연구자들이 보편적 법칙정립과 정확한 예측의 실패를 자료와 관찰의 부족 탓으로 돌리는 악습에 젖을 가능성도 커졌다(김진환, 2003). 이러한 악습에 젖지 않기 위한 대안적 방법론의 모색도 제기되었다. 황성모(1977)는 안병영의 글이 발표된 직후 베버의 ‘이해사회학적 방법론’의 수용을 주장하며 안병영을 비판했다. 그는 정치학이 주도한 규범(법칙)정립적 연구들이 “사회과학자들이 스스로를 ‘현실’에 구속시킴으로써 거의 행태학적 접근—원인과 결과의 기계적 관련성에서 자기와 이론을 제한하려는 태도—을 보였다”⁵⁾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행위의 주관적 의미를 ‘증거’를 통해 이해하고 사회적 행위의 원인을 규명하는 이해방법론이 북한사회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4) 안병영,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제3권 1호(평화통일연구소, 1977), 152쪽.

5) 황성모, “북한연구 논고: 이해사회학적 방법론 시론,” 『통일정책』, 제3권 1호(평화통일연구소, 1977), 132쪽.

(135~6).

한편 구본태(1981: 152)는 실증주의적 과학관 안에서 대안을 모색했다. 그는 1970년대의 북한연구를 주제와 연구자, 방법론을 중심으로 개괄한 후 실증주의적 방법론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연구의 정책적 수요나 사회과학적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방법 논쟁이 서구이론의 적용 여부와 실증적 자료의 충분성 여부의 틀에서 ‘배회(徘徊)’해 왔던 이유를 연구방법에 대한 인식기초와 인식대상에 대한 견해를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기하였다.

그가 보기에 연구자는 “왜 북한을 알아야 하며, 북한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인가”⁶⁾에 대한 견해를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통일과 적대, 민족적 연계의 대상인 북한은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게 연구해야 하며,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정책개발에 필요한 정보획득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구체적 방법으로 북한 공식문헌 비교연구, 북한이 모방한 스탈린-레닌 식의 공산권 이념 연구, 보편법칙과 선행조건의 활용을 통한 예측 등을 제시해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방문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 심리학적 분석, 역사적 고찰, 다른 국가의 경험을 통한 유추 등을 동시에 강조했다.

이 시기에 진행된 논의들은 북한을 본격적으로 하나의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에서 벗어나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증주의적 연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적 제안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6) 구본태, “북한연구를 위한 접근론 서설,” 『북한학보』, 제5집(북한연구소, 1981), 151쪽.

2) 탈냉전기의 내재적 접근법 논쟁

이미 중국 사회주의는 1970년대 말에 개혁·개방의 길에 나섰고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한창 체제전환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던 1980년대 말 국내의 학계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고 있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급속한 사회변동, 통일운동 및 ‘북한바로알기운동’의 확산 등이 연구 의욕을 자극했고, 북한을 설명하는 데 서구의 방법론과 이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선협적 편견의 탈피를 강조하는 ‘내재적 접근’이 재독 학자 송두율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 논쟁의 발단이다.

논쟁의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8년 송두율이 처음으로 내재적 접근을 주장한 이후, 강정인 교수가 송두율 교수를 비롯한 이른바 내재적 접근론자들(강정구, 김연철, 이종석, 최완규 등)⁷⁾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다시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강 교수의 글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 논쟁이 1990년대 중반에 뜨겁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1998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이 발행한 『현대북한연구』 창간호에 강정인, 김연철, 그리고 서동만이 지난 시기의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평가적인 글들을 차례로 실음으로써 북한연구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 지어졌다.

초기에 송두율, 강정구 등에 의해 제기된 내재적 접근이란 “북한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에 입각하여 북한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방법”⁸⁾을 지칭한다.

7) 이들 중 김연철과 최완규는 내재적 접근에 대해 여러 차례 다른 관점을 제기했지만 강정인은 이들 모두를 내재론적 접근론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강정인, 1998, 「북한연구 방법론: 재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현대북한연구』, 창간호(1998) 참조.

여기에 이중석이 이해와 평가를 구분하고 평가과정에서의 비판적 접근을 강조하는 이른바 내재적·비판적 접근을 덧붙였다. 이러한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이후 다양한 논평들이 제기되었다.

논쟁의 공방은 ‘내재적/외재적’의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송두율(1988, 1995)은 ‘내재적/외재적’ 구분의 의미가 ‘경험적/선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고, 강정구(1990, 1996)는 전체주의이론, 수렴이론, 또는 근대화 접근법 등을 ‘외재적’ 접근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내재적’ 접근의 개념을 구체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강정인(1993, 1994)은 처음에는 내재적 접근법이 체제 ‘안’의 행위자 시각을, 그리고 외재적 접근법이 체제 ‘밖’의 관찰자 시각을 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가, 나중에 북한사회가 설정·추구하지 않은 외부의 논리나 이념 등에 따라 분석·비판하는 접근법을 ‘외재적’ 접근법이라고 정의했다⁹⁾. 위의 논자들은 공통적으로 ‘내재적/외재적’ 구분을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치환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형태상 어느 논자도 이념적 대립 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한편, 내재적 접근법 논쟁이 방법론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논자들도 있다. 먼저 김연철(1998)은 송두율, 강정구 등의 내재적 접근론에 대한 강정인의 거듭되는 반론 및 재론에 근본적인 논리적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인식의 방법을 연구의 방법으로

8)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2월호(1988); 강정구, “연구방법론: 우리의 반쪽인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을유문화사, 1990).

9) 강정인의 개념 정의 변화 과정은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I: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1993);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II: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상호관계에 관한 일 연구,”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IV): 북한의 경제·사회·문화 분야』(통일원, 1993); 강정인, “북한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제26호(1994)를 참조할 것.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45). 다시 말해서, 송두율이 처음에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북한사회를 사회주의 이념에 비추어 검토·비판해야 한다”¹⁰⁾라고 규정하고, 나중에 “내재적이라는 뜻은 ‘immanent’이며 우리의 인식이 ‘경험’에 의거하고 있다”¹¹⁾라고 강조했듯이, 내재적 접근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인식하는 방법, 즉 인식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김연철, 1996: 165~6). 그런데 강정인은 ‘내재적’의 용어를 연구방법론적 개념으로 혼동하여 인식의 방법과 연구의 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거나 평가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연철은 경험 인식이 가지는 불완전성이라는 본질 때문에 똑같은 경험이라도 시각의 차이에 따라 경험적 서술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경험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인식의 방법이 아니라 연구의 방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내재적 접근법 논쟁을 연구방법론의 논쟁으로 보지 않는 논자들 중 한 명인 박형중(1999)은 내재적(-비판적) 접근법에 대해서 “그것이 북한이라는 대상에 대한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는가”¹²⁾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에 의하면, 내재적(-비판적) 진영의 핵심적 고민은 북한이라는 해석과 평가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재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 관련 사항들을 이데올로기적·규범적으로 어떻게 해석·평가하며, 북한체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어떻게 가려 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박형중은 내재적(-비판적) 진영과 강정인의 중재 시도¹³⁾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오류는 대상에 대한 해석과 평

10) 송두율, 1988, 위의 글, 105~109쪽.

11) 송두율, “북한연구에서의 ‘내재적 방법’ 재론,” 『역사비평』, 제28호(1995).

12) 박형중, “북한정치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한울, 1999), 52~53쪽.

13) 박형중은 송두율, 강정구를 비롯한 내재적 접근론자들에 대한 강정인의 반론을 내재적 방법론과 외재적 방법론을 중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한다.

가를 대상에 대한 연구(분석, 이론화, 개념화¹⁴⁾)와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완규(2004) 역시 내재적 접근 논쟁을 방법론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논자들 중 한 명이다. 그는 일부 내재론자들이 냉전시 기 북한연구의 왜곡현상을 허물기 위한 작업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북한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외면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북한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두윳을 비롯한 내재론자들과 강정인 간에 전개된 논쟁은 우선 논쟁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내재론자들은 북한을 보는 일종의 ‘문제의식’ 내지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서, 강정인은 본격적으로 접근방법 수준에서 내재론자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이 논쟁은 방법론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대신 그는 주제에 따라서 내재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에서 볼 때 더 잘 보이는 부분(예컨대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외재적 접근에서 주장하는 ‘밖’에서 관찰할 때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예컨대 북한 핵문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연구방법으로서 탈북자 조사의 대두와 연구현황

내재적 접근법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 1990년대 중반에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탈북자의 급증이었다. 2005년 2월 15일 통일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방 이후부터 1989년

14) 박형중은 대상에 대한 연구 즉, 분석·이론·개념을 통한 연구를 “대상에 내재하는 규칙성의 발견과 그에 대한 묘사 및 설명”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박형중, 위의 책, 54쪽.

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가 총 607명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여 2005년 2월 현재까지 남한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총 6,304명에 이른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연구물들이 속속 나오고 내재적 방법론 논쟁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연구의 부상이 기존의 연구방법론 논의들과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급격한 사회변동과 맞물려, 그리고 계량적 분석이 불가능한 현실적 제약¹⁵⁾ 속에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방법¹⁶⁾의 도입은 과거의 북한연구방법론 논의들에서 주요하게 강조되었던 실증주의적 연구와 내재적 접근이라는 요구를 동시에 일정 정도 충족시켜 주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탈북자 조사는 문헌조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던 종래의 북한연구방법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북한연구들에서 몇 가지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초반기에는 대체로 탈북자 조사의 초점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

15) 북한연구에서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풍부한 통계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어떠한 공식통계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양문수, “북한경제 연구방법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연구방법론』(한울아카데미, 2003), 215~216쪽.

16) 질적 연구방법은 첫째,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경험되고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두며, 둘째, 이 방법은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고, 자료가 창출되는 사회적 맥락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셋째, 분석과 설명방법에서 복합성, 세부사항,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풍부하고 상황적이며 세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완숙한 이해를 창출해 내는 데 목적을 둔다.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아르케, 2004), 18~19쪽.

하는 데 맞추어져 있었다면, 중후반기에는 북한의 식량부족의 실태나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들에 도입됨으로써 탈북자 조사의 내용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탈북자 조사의 내용 변화는 시대적 상황 또는 배경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사회의 주민의 의식 변화 여부가 연구의 관심이었다면, 1990년대 중후반에는 북한의 식량난의 참상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북한연구 역시 그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에 집중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에 들어서면서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북한사회도 서서히 안정화되는 가운데 탈북자의 양적 증가와 함께 탈북자와의 접촉이 대중화됨으로써 탈북자 조사 역시 북한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에 폭넓게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방법 측면에서 많은 다양한 주제의 북한연구들이 탈북자 조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 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방법론적 다원주의¹⁷⁾를 추구하고 있는 최근의 북한연구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가 증가하면서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구갑우, 2003: 299).

17) 방법론적 다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갑우(2003)는 탈중자(脫中者)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화를 시도했던 앤드류 월더(Andrew Walder)의 연구가 북한연구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Andrew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참조.

<표 1>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북한연구의 현황

연도	저자	제목	연구방법	조사 대상 수	주제
1990	최평길	『북한주민 의식조사 연구: 월남 귀순자 중심으로』(연세대)	문헌조사+ 설문조사	50명	북한주민의 체제의식
1994	서진영	『북한주민들의 가치의 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민족통일연구원)	문헌조사+소설, 수기(면접)	1990년대 이후 약 10~15명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
1995	서재진	『또하나의 북한사회』(나남)	문헌조사+소설+ 탈북자증언	명시 안 됨	북한의 제2사회 형성
1996	이종석 외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조사』(통일연수원)	문헌조사+설문, 면접조사	20명	북한주민의식 및 가치관
1996/2001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성균관대)/『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역사비평사)	문헌조사+ 면접조사	명시 안 됨	식량배급 실태 파악
1997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삼성경제연구소)	면접조사+ 수기조사	10명	식량위기 실태 파악과 개혁전망
1999	강정구, 법률 편	『1999 민족의 희망찾기』(정도출판)	문헌조사+ 면접조사	1,694명	북한의 식량난과 사회변화
1999/2003	박현선	『현대북한의 가족제도 연구』(이화여대)/『현대 북한사회와 가족』(한울)	문헌조사+설문, 면접조사	165명	북한의 가족제도, 기능, 의식 변화
1999	좋은벗들	『사람답게 살고 싶소』(정도출판)	설문조사+ 심층면접	1,855명	북한사회의 실상과 식량실태
1999	한만길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북녘에서 살다 온 16인의 생생한 교육체험.『우리교육』	수기조사	16명	북한교육 변화
2000	양문수	『북한기업의 행동패턴』, 『현대북한연구』(제3권 1호)	문헌조사+ 면접조사+ 비교사회주의	20명	북한 기업행동 실태 파악
2000	좋은벗들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정도출판)	심층면접	명시 안 됨	북한주민의 삶 실태

2001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영』(아주대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심층면접	명시 안 됨	북한보건의료제도 실패
2001	좋은벗들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정토출판)	설문조사	1,527명	북한주민의식, 통일외식
2001	여성한국사회연구소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사회문화연구소)	심층면접	14명(여성)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2001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통일과 여성: 북한여성의 삶』(이화여대출판부)	심층면접	5명	북한 청소년기의 성사회화
2001	최봉대	『북한의 속도전청년들 격대와 체제유지 기제』[『경제와사회』(제149호)]	문헌조사+수기+면접	4명	속도전청년들 격대
2001	오유석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가부장제』[『경제와 사회』(제49호)]	문헌조사+수기+조사(설문, 면접)	설문-43명 면접-6명	북한의 가부장제
2002	서재진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이후의 농민들의 의식변화』[『현대북한연구』(제5권 1호)]	문헌조사+면접조사	명시 안 됨	농민의 의식변화
2003	이철수	『북한사회복지』(청목출판사)	문헌조사+설문조사+심층면접	101명	북한의 사회복지 실패
2003	세종연구소	『북한의 국가전략』(한울)	문헌조사+면접조사	명시 안 됨	북한경제전략
2004	세종연구소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한울)	문헌조사+면접조사	명시 안 됨	사로청, 여맹 등 외곽단체
2004	최완규 외	『북한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신의주·혜산』(한울)	문헌조사+면접조사	65명	청진, 신의주, 혜산 도시 변화
2005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과급효과·성격과 의미』[『KDI북한경제리뷰』(2월호)]	문헌조사+면접조사	20명	북한의 종합시장 실패

3.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북한연구의 유형별 분석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탈북자 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나 자료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¹⁸⁾하고 있다. 이처럼 탈북자를 활용한 연구가 급증한데는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탈북자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래의 북한연구에서 자료 부족에 의한 한계의 극복과 경험적 접근의 대안으로서 탈북자 조사가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가 대체로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의 적응 및 부적응의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 그리고 개선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과 관련된다면, 후자의 경우는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사회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 주로 분석할 대상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연구들, 즉 탈북자 조사를 활용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이다.

북한연구의 경험적 자료로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탈북자 조사는 북한의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들에 대한 제기에서부터 기존 사실들에 대한 확인,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도 및 정책들에 대한 세부사항들, 그리고 내적 구조의 동학과 행위의 미시적 과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연구의 주제나 분석대상에 따라 탈북자 조사를 활용하는 방법과 범위도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북한연구들을 네 가지 유형(실태보고서형, 부분확인형, 분석형, 구술형)으로 나누어 그 특징과 장점 및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18) 2005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검색 결과, 석·박사학위논문 132건, 단행본 36건, 국내학술잡지 373건이 탈북자 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1) 실태보고서형

1990년대 중반 북한당국이 외부 세계에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탈북자 행렬이 증가하면서 북한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들은 ‘산 증인’으로서 북한의 현지 상황을 전달해 주는 일종의 ‘리포터’ 역할을 하였고, 탈북자 조사를 토대로 한 많은 실태보고서형의 연구들이 촉발되었다.

실태보고서형의 북한연구는 연구의 주제가 흔히 식량부족 실태와 발생원인,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며, 북한사회의 분석이나 이론화 등의 작업보다는 급변하는 실태를 알리는 일종의 보고서(report)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유형은 여러 구호단체들이 외부세계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식량부족의 심각성, 아동의 영양결핍, 대규모 아사로 인한 인구감소, 의료 환경의 낙후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연구 주체도 종교단체, 구호단체, 그리고 기타 민간단체 등이거나 이 단체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경우들이 대부분을 이룬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는 김연철(1997), 강정구(1999), 좋은벗들(1999, 2001) 등¹⁹⁾이 있다.

식량배급의 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 실태를 탈북자 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여준 김연철의 연구는 경제위기의 실태 파악과 개혁 전망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이전에는 주로 암시장 등 2차경제가 계획경제의 한계를 보완했다면,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1990년대에는 2차경제가 계획경제를 대체하고 있다는 가설하에

19) 앞서서부터 차례로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삼성경제연구소, 1997); 강정구·법률 편, 『1999 민족의 희망찾기』(정토출판, 1999); 좋은벗들,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정토출판, 2001).

서 탈북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김연철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도출했다. 첫째, 식량난은 구조적이고 장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 식량배급의 위기와 소비품 공급 부족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 예컨대 암시장의 확산(사적 거래의 증가), 이중가격체계(공식가격, 암시장가격) 형성, 노동자의 직장이탈 증가, 국가 이데올로기의 위기 등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암시장 규모로 보아 북한 경제는 시장관계가 주도하는 국면으로 이미 진입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자는 “현재 북한의 구조적 경제위기를 고려할 때 계획메카니즘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며, 시장거래를 통제할 국가능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유일한 선택은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암시장을 공식화시키는 것이며 시장개혁 선택이 불가하다”²⁰⁾라는 전망을 제기하는 데 이른다.

이 같은 결론과 전망은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 탈북자들이 전하는 현상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도출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개혁 전망과 관련하여 탈북자의 증언에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현상에 매몰되어 체제의 구조적 특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것은 탈북자 조사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기도 하다.

때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면접조사의 규모를 대형화시킴으로써 신뢰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서 강정구의 『1999 민족의 희망찾기』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민간 연구자가 진행한 탈북자 조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20) 김연철, 위의 글, 1쪽.

있을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만 1,694명이나 되며, 그 대상자 가족까지 합하면 무려 9,249명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인터뷰가 가능했던 것은 구호운동 차원에서 종교 단체들이 북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애초부터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의 심각성과 북한주민의 참혹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밝히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강정구는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참상을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사회가 경제토대, 생활양식, 가치관, 인구분포 등에서 점진적이지만 근원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선 개인상행위 및 개인부업 활동의 증대, 개인소유 대상의 범주 확대, 제2경제 또는 ‘비공식경제’의 출현, 의사결정의 분권화, 그리고 대외무역의 국가독점 해체 등 기존의 경제토대가 변화하고 있다. 경제토대의 변화는 생활양식, 사회의식, 가치관 등 상부구조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사회변화를 강정구는 ‘제2사회’의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좋은벗들의 법률(2001) 역시 연구의 목적, 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 규모²¹⁾ 등에서 앞의 강정구 연구의 연속선상에 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북한 내 가족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 북한 식량난과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 북한의 사회제도에 대한 인식, 난민 생활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조사의 결과 역시 앞의 김연철과 강정구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99년 이후부터 대량 아

21) 법률의 조사는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전역, 요령성 심양시, 길림성 매하구시, 흑룡강성 영안시에 식량난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난민 — 연구자는 ‘탈북자’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대신 ‘북한 난민’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총 1,027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사 사태가 진정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월경하는 경우가 많으며, 난민 대다수(71.7%)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법륜, 2001: 22~30)는 점이다.

법륜의 연구에서는 종종 조사 내용들 간의 인과성 부족이나 부분적 현상에 대한 과도한 확대 해석 등과 같은 오류들이 나타난다. 예컨대, 장마당의 필요성이 자유시장 경제제도에 대한 요구로 확대 해석된다던가, 부분적 치안 유지의 어려움이 사회질서가 붕괴되었다라고 단정내리는 등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자가 북한체제의 구조나 역사성을 간과하고 탈북자가 전달하는 현상에 문혀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탈북자 조사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할 때 연구자는 증언에 대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구조에 기반하여 신중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몇 가지 조사 내용구성이나 해석상의 오류가 존재할지라도, 실태보고서형의 연구들은 최근의 북한사회의 참상을 우리 사회에 생생히 전달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후 북한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데 충분하였다.

2) 부분확인형

이 유형은 탈북자 조사가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연구자의 주장의 부분적 증거로 이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제1의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를 채택하고 있지만 문헌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미시적 수준의 연구대상을 규명하거나 이미 파악된 부분적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탈북자의 증언을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체로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들은 계획경제의 마비, 배급 중단, 비공식부문의 확대, 비사회주의적 일탈행위, 의식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행위자 중심의 미시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유사성을 보인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는 김연철(1996, 2001), 양문수(2000), 서재진(2002), 세종연구소(2003, 2004) 등²²⁾이 있다.

김연철(2001)은 기존 북한연구에서 지배적이었던 ‘위로부터의 시각’, 즉 전체주의 접근법대신에 신제도론적 관점²³⁾에서 북한을 보는 시도를 하였는데, 그는 수령제가 성립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밝히기 위해 북한식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사회경제적 위기들의 하나로 1990년대 이후의 위기 모습을 탈북자 조사를 통해 보여준다.

김연철은 탈북자 조사를 통해 식량배급의 위기와 소비품 공급부족이 다양한 사회적 변화, 특히 비공식 부문의 확대에 주목한다. 식량배급제가 약화되면서 식량의 사적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사적 거래는 암시장을 통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나아가 사적 거래의 확산은 이중가격체제와 화폐가치의 하락, 국영상업망의 기능이 약화, 국영기업소의 노동력통제의 혼란, 이데올로기의 정당성 약화 등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탈북자 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암시장의 확대가 개혁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22) 앞에서부터 차례로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역사비평사, 2001); 양문수, “북한 기업의 행동 패턴: 비교 경제 체제론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제3권 1호(2000); 서재진,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이후 농민들의 의식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5권 1호(2002);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한울아카데미, 2004).

23) 김연철의 설명에 따르면, 신제도론의 기본가정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적 특성이 그들이 놓여있는 제도적 무대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제도는 공식 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규칙 그리고 행위를 구조화하는 절차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역사비평사, 2001), 49쪽.

김연철의 연구에서 탈북자 조사는 단지 1990년대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활용한 데 그치고 있다. 또한 탈북자 조사가 과연 그의 연구가설 — 사회주의 산업화의 위기와 정치체제(수령제) 형성 사이의 인과관계 — 을 증명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심스럽다. 다시 말해서, 1990년대의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 나타난 비공식적 규칙이나 행동과 수령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

세종연구소(2004)는 주로 문헌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청년동맹, 직업동맹, 농근맹, 여맹, 문예총)에 대해 탈북자 조사를 통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탈북자 조사의 초점은 1990년대 이후 외곽단체의 기능이나 조직운영, 성원들의 의식 변화 등에 맞춰졌다. 분석된 외곽단체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로써 먼저 1996년 1월 16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명칭이 변경된 청년동맹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청년동맹의 명칭이 변경된 이유를 문헌을 통해서만 짐작할 수 없었는데, 세종연구소는 탈북자 조사를 통해서 그 이유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청년동맹의 위상을 높이고 변화에 민감한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충성심을 유도하려는데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경제난은 조직들 간의 영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에게 더 이상 일거리가 없게 되자 직업동맹의 영향력 또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무엇보다도 식량증산이 절실해짐으로써 농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농근맹의 기능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경제위기가 집단이나 기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1990년대의 북한사회의 위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양문수(2000)는 사회주의 경제가 시스템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거시적 차원보다는 미시적 차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면서, 북한의 미시경제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이자 행위자인 기업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기업행위를 파악하는데 자료 및 정보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탈북자 조사를 이용하였다. 특히, 그는 기업 활동의 경험이 있는 20명을 선정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탈북자 조사의 결과들은 구소련과 동유럽의 기업행동 모델이었던 바게이닝(Bargaining) 모델이 북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형태의 기업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농장의 협동화와 그 이후의 농민의 인식 변화에 대한 서재진(2002)의 연구도 주목해 볼 만하다. 서재진은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농민들이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농업협동화와 그 이후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밝히기 위해 그는 북한의 공식문헌 및 2차 자료, 그리고 탈북자의 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서 그는 탈북자 조사를 직접 실시한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 실시한 월남자들의 증언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분확인형 연구의 특징은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부분적인 증거 제시나 문헌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 확인 차원에서 탈북자 조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유형의 연구들에서는 비공식부문과 행위의 미시적 과정에 대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3) 분석형

남한사회에서의 탈북자 정착 및 적응과 관련된 정책적 차원의 연구들을 제외하면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북한연구들은 궁극적으로는 북한 사회의 구조와 행위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분석형과 부분확인형 모두는 탈북자 조사의 활용 목적 차원에서 유사하나, 부분확인형과 달리 분석형은 탈북자 조사를 전체 연구의 보완적 연구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제1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제도나 정책, 조직 등과 같은 대상들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들의 주제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가족, 성, 시민사회와 같은 사적 영역에 대한 주제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격대 등 공적 영역에 대한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재진(1995), 문옥륜(2001), 오유석(2001), 최봉대(2001), 허라금(2001), 박현선(1999), 이철수(2003) 등²⁴⁾이 있다.

먼저 서재진(1995)은 북한의 사회구조, 주민들의 인성, 직업관, 경제생활, 사회생활, 정치생활 등을 탈북자의 증언과 북한 소설을 통해 1990년대 북한 주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또 하나의 사회’ 또는 제2사회가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생성되고 있는 제2사회

24)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나남출판, 1995);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영: 탈북자 증언을 중심으로』(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1); 오유석,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가부장제,” 『경제와 사회』, 제49호 봄호(2001); 최봉대, “북한의 속도청년돌격대와 체제유지 기제,” 『경제와 사회』, 제49호 봄호(2001); 허라금, “청소년기, 여성으로 성장하기,”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엮음, 『통일과 여성: 북한 여성의 삶』(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한울, 2003); 이철수, 『북한사회복지』(청목출판사, 2003);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한울, 2004).

가 공적 사회 또는 사회주의적 원칙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병존하면서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체제의 교체보다는 지하세계를 형성하여 대안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와 일탈행위의 확산을 단순히 사회적 병리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변화의 지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진의 연구가 연구방법 차원에서 다른 연구들에 비해 돋보이는 특징은 탈북자의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 소설들을 통해 교차확인(cross-check)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북한 가족은 북한연구들에서 비교적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이다.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북한가족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박현선(2003)의 연구이다. 그는 “왜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가”의 문제제기 즉, 북한사회의 지속성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 해답을 가족에서 찾았다. 그는 탈북자 조사연구를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는데, 첫 번째 조사는 1980년~1998년까지 한국에 입국해 있는 탈북자 165명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양적방법과 탈북자 20명에 대한 심층면접, 참여조사 등의 질적방법론을 병행하였다. 두 번째 조사는 1992년부터 2001년 사이에 탈출한 탈북자 5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그는 두 차례의 탈북자 조사와 더불어 문헌조사와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북한가족에 관한 실증적 접근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북한가족은 위기 대처전략과 그에 따른 가족의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국가의 위기를 상당 부분 흡수함으로써 국가를 안정시키는 사적통합 기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연구방법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탈북자에게 한 질문들 중에서 ‘인민의 체제만족도’에 대한 것이 있다. 그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 중 대다수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

하였다. 이 질문은 응답자 집단이 북한체제를 등지고 떠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제만족도를 질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설문에 응한 탈북자의 대다수가 체제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고 하여 북한 인민 전체가 체제에 불만족하고 있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더 위험한 해석이다.

북한가족과 더불어 탈북자증언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연구대상 중 하나는 바로 북한여성이다. 오유석(2001)은 남한 내 여성학자나 북한연구자들이 북한의 여성에게 남한식 가부장제라는 꼬리표를 달고 우리가 짠 틀에 맞추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를 반성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을 가부장제의 형태와 성격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하나는 연구자가 직접 수행한 탈북자 조사 자료로서 43명의 여성탈북자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6명의 탈북여성들을 심층면접을 하였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북한 여성 연구의 성과물, 즉 2차 자료와 탈북자들의 수기이다. 이밖에 부족한 자료는 북한 공식문헌, 특히 여성잡지 『조선여성』을 활용했다. 결론적으로 오유석은 북한의 가부장제가 국가 폭력을 핵심적 본질로 하여 사회적 노동, 가사노동, 성문화, 그리고 폭력관계에서 중층적으로 억압적이고 차별화된 남녀관계의 가부장적 의식과 제도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여성을 바라보려고 한 허라금(2001)은 북한의 공식문헌을 통해서 국가가 어떤 여성들을 길러내고자 하는가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식으로 청소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탈북자 여성들을 조사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피면접자의 입을 통해 청소년 시

기의 여성정체성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직접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독자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였다.

북한사회의 조직이나 제도와 같은 공적 영역에 해당되는 연구들은 그동안 주로 문헌들에 상당히 의존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탈북자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영역에 대한 연구들에 탈북자 조사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먼저 문옥륜(2001)은 전형적인 관료주의와 당 중심의 권력이 배태한 부패구조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보건의료제도 역시 이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탈북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를 ‘당간부를 위한 무상치료제’, ‘약품이 극도로 부족한 병원’, ‘정치선전 위주의 위생선전활동’, ‘주민통제수단으로서의 무상치료제’ 등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옥륜은 북한의료제도의 보편적 수혜주의, 예방우선주의, 위생선전주의 및 무상치료주의 등의 원칙들이 견지되고 있다는 점과 선진의료기술과 의료비, 그리고 의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려의학과 민간요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서 발견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피면접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즉 피면접자의 수나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등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인구학적 정보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접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게다가 문헌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탈북자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간의 구분이 없이 기술되고 있어 혼란스럽다.

다음으로 이철수(2003)는 북한사회복지에 관한 실증적 접근 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헌조사와 탈북자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연구 방식²⁵⁾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탈북자 조사를 통해

25) 이러한 연구방법은 박현선(2003)과 반대되는 것으로, 박현선은 탈북자의 면접조사의 결과를 문헌조사를 통해 보완하는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1990년대 북한사회복지 현실(실태)을 보여주고, 북한사회복지의 내용들 — 연금제도(양로연금, 폐절연금), 공적부조(인민시책, 배급제) 등 — 에 대해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사례연구²⁶⁾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철수는 문헌조사와 탈북자 조사를 통해 북한은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로 정의되는 큰 틀의 사회주의 복지이념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기반한 통치이념이 수령의 인민복지에 대한 권력독점과 지배를 나타내고, 그 때문에 북한인민은 자신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반영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김일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김정일은 향후 북한의 사회복지가 축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로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기존의 사회시책의 일부분을 손질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그대로 놔두거나 혹은 어떤 부분에서는 확대²⁷⁾됐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거듭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연구에서 전망을 제안할 때에 탈북자의 증언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현실과 엇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26) 이철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모임인 사단법인 “자유이주자 총연합회” 회원을 주요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는 2002년 1월에 79명, 2차는 동년 5월에 22명으로 총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례조사는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위 단체의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철수, 위의 책, 171쪽.

27)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앞서 나온 2001년 10월3일 김정일의 교시문건에 따르면, 김정일은 방대한 사적 축적의 규모와 막대한 사회적 시책에 의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 그리고 공짜와 평균주의에 의한 사회의 건달 풍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사회보협제와 사회보장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들에게 근심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시책의 고수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7·1조치’나 ‘10·3문건’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 축소라기보다는 복지의 남용 또는 낭비의 최소화를 꾀하고자 하는 현 지도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봉대(2001)는 ‘속도전돌격대’라는 다소 이색적인 대상을 통해 체제유지 기제를 설명하였다. 그는 문헌조사를 통해 속도전 청년돌격대의 제도적 특징을 설명하고, 탈북자들의 면접조사를 통해 돌격대의 건설사업, 돌격대의 노동규율과 일상생활상 등 돌격대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그는 속도전청년돌격대라는 집단적 노력 동원조직의 운용이 북한이 장기간의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해준 하나의 요인이 되었음을 밝혀냈다. 집단적 노동실천과 군대식 규율의 신체적 결착을 결합시킴으로써 체제유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돌격대형’ 인간을 창출하고, 청년집단의 선별된 지배체제로의 통합은 체제유지의 안전밸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최봉대의 연구는 비록 적은 사례의 탈북자 면접조사일지라도 북한사회의 구조를 충분히 설명해 낼 수 있다는 것과 속도전청년돌격대라는 미시적 수준의 연구가 거시적 수준의 문제—북한체제의 위기관리와 체제유지 기제—를 어떻게 설명해 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구술형

마지막으로 구술형은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자의 분석이나 해석 없이 독자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는 유형으로서 연구로서의 성격보다는 자료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분석에 해당되는 서술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유형의 연구가 연구자로부터 완전히 가치자유적인 것은 아니다.

구술형 연구는 흔히 한 개인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을 통해 얻는 구술자료의 성격이 짙는데, 구술자료는 연

구자와 연구대상(구술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동작업적 성격을 지닌다(윤택림, 2004: 101). 또한 조사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여 독자에게 보여주느냐의 선택의 문제 역시 연구자의 몫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엄밀하게 말하면 연구자에 의해 재구성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유형은 다른 연구들에 1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서 한만길(1999), 좋은벗들(2000), 여성한국사회연구소(2001) 등²⁸⁾이 있다.

한만길(1999)은 탈북자 16명의 교육체험 수기를 모아서 가정교육부 터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그리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탈북자들의 교육 체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수법,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비공식 관계나 교원들의 어려운 삶, 그리고 노력동원 등의 내용들은 연구자가 아니라 탈북자의 입을 통해 직접 설명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만길은 북한 교육의 괄목할만한 발전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특히, 교육이 주민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은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탈북자가 직접 구술한 것은 아니며 탈북자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도출한 것이다.

구술형은 무엇보다도 면접자와 피면접간의 돈독한 신뢰관계(라포)가 형성됨으로써 개인적인 삶의 내밀한 영역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심층면

28) 앞서서부터 차례로 한만길,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북녘에서 살아온 16인의 생생한 교육체험기』(우리교육, 1999); 좋은벗들,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정토출판, 2000);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여성한국사회연구소, 2001).

집을 통해 가능하다. 좋은벗들(2001)의 사례는 꽃제비 소년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북한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노동자·농민부터 외화벌이 사업자, 당간부, 의사, 교원, 학생, 장사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식량배급의 실태, 장마당의 확산, 열악한 보건의료의 현장 등 1990년대 북한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여성한국사회연구소(2001)의 사례는 탈북여성들이 구술하는 생애사를 통해 북한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구술형에 해당된다. 이 연구는 1990년대에 북한을 떠나 남한에 입국한 20대부터 70대 연령의 북한여성 14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연구자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령, 학력, 출신성분, 직업 등의 변수들이 고려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선별하였다. 연령은 20대부터 70대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직업도 노동자, 전문직, 사무원, 편의봉사직(서비스직), 전업주부 등 다양하게 선택되었다.

구술자료를 사회과학 연구에서 이용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적 주체와 사회적 맥락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구술자료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회상을 통해 현재로 불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술사는 바로 개인을 통하여 사회와 구조를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주관적 경험이 어떻게 객관적 구조와 상호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윤택림, 2004: 100). 따라서 이 유형의 관건은 역사적 서술에 존재하는 거시적·사회적 과정과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미시적·사적 서술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으나,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이러한 수준의 연구로 확대발전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4. 맺음말

최근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북한연구의 대두는 지난 시기의 북한연구방법론 논의들과 무관치 않다. 냉전적·이데올로기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증주의적인 북한연구로의 지향은 경험적 접근을 모색하게 되었다. 자료와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종래의 북한연구는 불가피하게 문헌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와중에 탈북자 조사는 대안적인 연구방법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자료의 발굴이라는 관점에서도 이제 탈북자 조사는 북한연구의 중요한 자료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다.

본론에서 탈북자를 활용한 다양한 북한연구의 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실태보고서형은 생생한 북한의 현실을 충실하게 ‘보고(reporting)’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현상외의 구조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부분확인형은 비록 단편(斷片)적이지만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서도 파악하기 힘들었던 사실의 새로운 발굴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나, 실질적으로는 비공식적 부문에 대한 정보획득 수준에서 활용되는 한계를 나타냈다. 분석형은 북한사회의 구조와 행위를 분석하고 일반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북한연구방법으로서 탈북자 조사가 갖는 잠재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구술형은 연구자의 가치개입이 최대한 배제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구술사 또는 생애사 연구방법이 북한연구에 높은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별 차이와 상관없이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연구들은 연구자가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현상들로부터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지 못할 경우에 구조적 요인들을 간과하게 되어 현실과 어긋난 결론이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한편 사회과학의 연구에서 현재 탈북자 조사는 방법 차원에서 몇 가지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탈북자 조사가 북한연구에 활용되는데 주된 장애는 증언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방법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문수(2003)는 면접하는 탈북자의 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린다면 증언의 대표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으며, 탈북자 증언에만 입각해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 문헌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재진(1995)은 정치적 편견이 덜 개입된 일상생활이나 의식세계를 파악하는데 조사내용의 초점을 맞출 것과 증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의 증언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수가 증언하는 내용을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 그리고, 증언들에 대해 교차확인을 거친 후에 자료로 사용할 것을 충고했다. 최근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에 관한 지침서가 될 만한 글을 쓴 최봉대(2003) 역시 면접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교차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교차검증의 방법으로는 비슷한 조건들을 가진 복수의 피면접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함으로써 얻어낸 응답들을 상호비교 검토하거나 기존의 증언이나 수기 등과 비교·검토하는 방법이 있다²⁹⁾.

과학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가진 가설을 정립하고 그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 과정에서 탈북자 조사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탈북자 조사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29) 이와 같은 상호검증의 방법은 일찍이 화이트와 패리쉬의 연구에서 시도되었다. 이들이 시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William L. Parish and Martin King Whyte, *Village and Family in Contemporary China*(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와 Martin King Whyte and William L. Parish, *Urban Life in Contemporary China*(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을 참조할 것.

현재 북한연구에서 탈북자 조사의 위치는 자료의 확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그것은 체계적인 분석과 개념화 또는 이론화의 수준으로까지 질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비판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하며,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적절하고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탈북자 조사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북한연구방법으로서 진지한 관심과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

■ 접수: 10월 30일 / ■ 채택: 11월 14일

참고문헌

- 강정구, “연구방법론: 우리의 반쪽인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서울: 을유문화사, 1990).
- _____, “북한연구사의 지식사회학적 검토,” 『통일시대의 북한학』(서울: 당대, 1996).
- 강정구·법률 편, 『1999 민족의 희망찾기』(서울: 정토출판, 1999).
- 강정인, “북한연구 방법론 I: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1993).
- _____, “북한연구 방법론 II: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VII): 북한의 경제·사회·문화 분야』(서울: 통일원, 1993).
- _____, “북한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제26호(1994).
- _____, “북한연구 방법론: 재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현대북한연구』, 창간호(1998).
- 구갑우, “북한연구와 비교사회주의 방법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위임,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 2003).
- 구본태, “북한연구를 위한 접근론 서설,” 『북한학보』, 제5집(서울: 북한연구소, 1981).
- 김연철, “북한 현대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역사연구소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서울: 역사비평사, 1996).
- _____,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 _____, “북한연구에서 인식론 논쟁의 성과와 한계,” 『현대북한연구』, 창간호(1998).
- _____,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서울: 역사비평사, 2001).
-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영: 탈북자 증언을 중심으로』(아주남북한보건의료 연구소, 2001).
- 박순성, “북한 경제와 경제이론,” 『현대북한연구』, 제5권 2호(2002).
-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박형중, “북한정치연구,” 북한연구학회 위임,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서울: 한울, 1999).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 1995).

- _____,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이후 농민들의 의식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5권 1호(2002).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서울:한울, 2004).
-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2월호(1988).
- _____, “북한연구에서의 내재적 방법 재론,” 『역사비평』, 제28호(1995).
- 안병영, “북한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정경연구』, 8월호(1975).
- _____,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평가,” 『통일정책』, 제3권 1호(1977).
- 양문수, “북한 기업의 행동패턴: 비교경제체제론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제3권 1호(2000).
- _____, “북한경제 연구방법론: 시각, 자료, 분석틀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 2003).
- 양호민 외, “북한연구의 학적 체계와 방법적 성찰,” 『북한』, 8월호(1975), 여성한국사회연구소,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사회문화연구소, 2001).
- 오유석,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가부장제,” 『경제와 사회』, 제49호(2002).
-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아르케, 2004).
- 이철수, 『북한사회복지: 반복지의 북한』(청목출판사, 2003).
- 전상인, “북한사회 연구,”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서울: 한울, 1999).
- 좋은벗들 엮음,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서울: 정토출판, 2000).
- _____,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서울: 정토출판, 2001).
- 최봉태, “북한의 속도전 청년돌격대와 체제유지 기제,” 『경제와 사회』, 제49호(2001).
- _____,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연구시각·체제성격의 특수성과 보편성,”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 2003).
-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서울: 한울, 2004).
- 한단길,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북녘에서 살아온 16인의 생생한 교육체험기』(우리교육, 2001).
- 황성모, “북한연구 논고: 이해사회학적 방법론 시론,” 『통일정책』, 제3권 1호(1977).
- 허라금, “청소년기, 여성으로 성장하기,”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엮음, 『통일과 여성: 북한 여성의 삶』(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Walder, Andrew,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L. Parish, William and Whyte, Martin King, *Village and Family in Contemporary*

China(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_____, *Urban Life in Contemporary China*(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Application and Trend of Researches on North Korean Refugees as a Method of North Korea Studies

Eun-Mee Jeong(Researcher in Modern History Institution, Sociology)

Recently emerging researches on North Korean refugees follow two past methodological discussions in North Korea studies. One was the discussion on considering North Korea studies as a field of social science and pursuing positive methodology of them in the early 1970s. The other is the debate on the immanent approach that had developed from the late 1980s until the middle of 1990s.

Positivism-orientated studies on North Korea require to get out of the existing research method heavily depending on literature and materials, but in the circumstance where the access to materials and objects were limited, researches on North Korean refugees has been emerging as an alternative method. Now their testimony becomes an important source as materials or evidence in North Korea studies.

I attempted to classify a lot of researches using North Korean refugee's testimony into four types. First, the 'report' type has the

advantages of describing and conveying North Korean reality vividly, but it cannot satisfactorily explain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Second, the ‘partly verifying’ type is useful to confirm or find the facts or information in the micro level that it is difficult to grasp through the research of literature, but this type has been limitedly used to confirm or verify the informal sectors in socialist North Korea. Third, the ‘analysis’ type is the main method used to analyze or explain the system,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but most of the studies have adopted this type along with the research of literature. Finally, the ‘oral’ type has the advantage of conveying the facts as it is without intervention of researcher’s value, but this type is not broadly introduced into the studies on a variety of fields in North Korea yet.

Although researches on North Korean refugees have some problems to resolve as the method of North Korea studies, while they have a lot of availability and the value as empirical approach in the situations limited the access to North Korea society.

Key Words: methodological discussion, positivism, immanent approach, North Korean refugee, report type, partly-verifying type, analysis type, oral type, empirical approach